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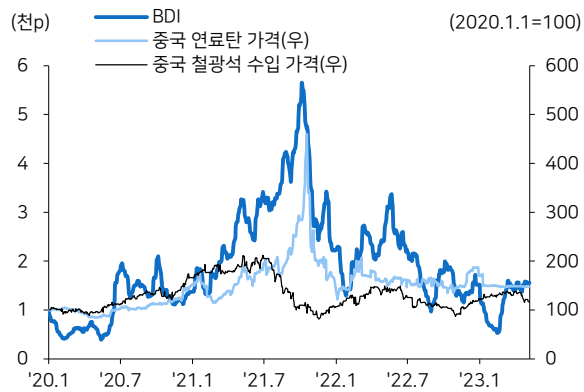
2023. 5. 10 (수)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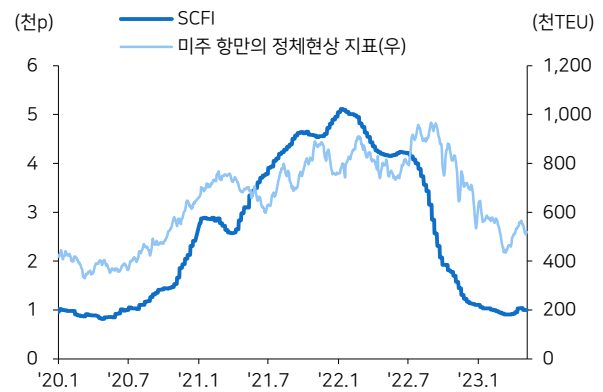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98.0p(+4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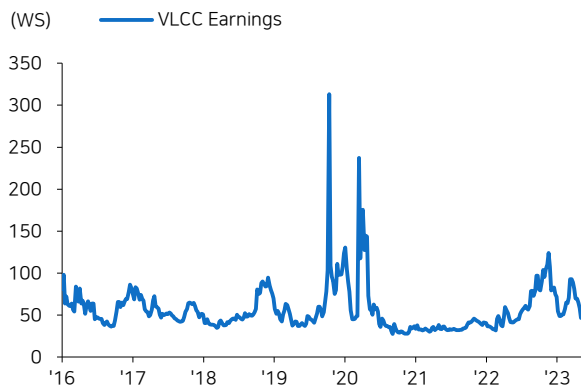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98.3p(-1.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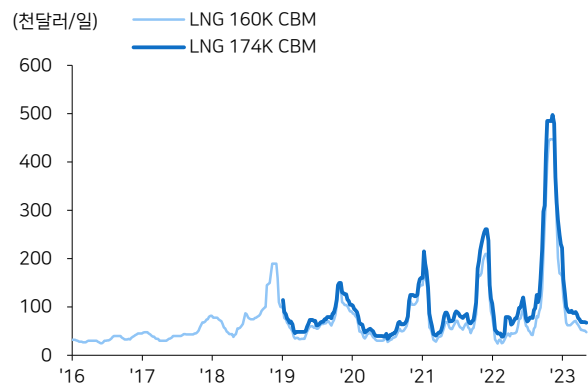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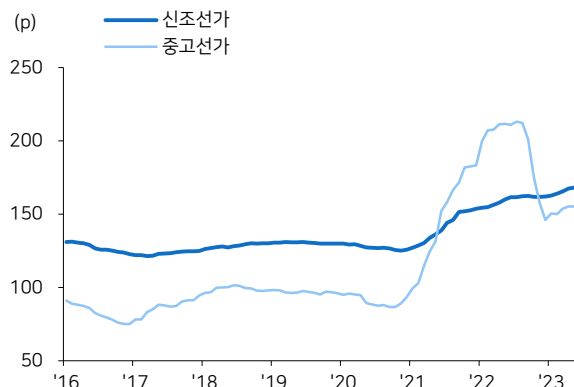
46.4p(-11.8p WoW)



LNG Spot 운임

47.8천달러(-3.5천달러 WoW)
67.3천달러(-1.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8.1p(+0.8p WoW)
155.2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11.0달러(+0.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hevron targets single South Korean shipyard for LNG carriers

Chevron이 삼성중공업에 LNG선 4+2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보도됨.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황임. 한 브로커는 10척 발주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bit.ly/3VN4vzw>)

CMA CGM on the hunt for up to 10 ultra-large container ship newbuildings

프랑스 CMA CGM이 24,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5~10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보도됨. 선가는 적어도 총 24억달러에 달할 전망으로 알려짐. 한국 조선 3사와 중국 2개사에 문의했다고 알려짐. 그러나 현재 조선소 일감이 몰려있어 발주하더라도 2026~27년까지 기다려야 할 전망으로 언급됨. 24,000TEU급 선박은 건조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일부 업체는 수주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bit.ly/3VK4Wdl>)

Elderly tankers to form 15% of fleet by mid-decade, says Braemar

2025년 중반에는 6척 중 1척의 탱커가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일 전망으로 보도됨. 현재는 약 8% 수준으로 알려짐. 규제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 수송 수요가 노후선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bit.ly/3VNIIO2>)

High value of five-year-old ships is 'classic' sign of market health, Clarksons says

신조선가 대비 중고선가 비율이 13년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 수명을 2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18년에 건조된 선박이 일정한 비율로 상각된다고 가정하면 신조선가의 80% 수준이라고 언급됨. 선령 5년인 Aframax는 신조선가의 95% 수준으로 알려짐. 투자자들의 시장 호황 판단 또는 신조선 인도기한이 너무 길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bit.ly/3LNIQdD>)

Capesize bulker spot rates break \$20,000 per day mark as futures surge

Capesize 벌크선 Spot운임이 2023년 처음으로 20,000달러/일을 초과했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5월 9일 영국 대관식으로 거래소가 휴일이었던 영향이 있다고 알려짐. 호주의 철광석 수출량이 전주대비 6% 증가했고, 철광석 및 철강 가격의 상승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함. Rio Tinto가 9일 호주-중국 항로 철광석 수송 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말 유사한 계약 건 대비 8.95달러/톤 높은 가격에 체결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bit.ly/3prmG1C>)

대한조선, Suezmax 탱커 수주

대한조선이 158,000DWT급 Suezmax 탱커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2023년 1월 수주한 선박의 옵션 분으로 선가는 7,700만달러로 알려짐. 1월 수주 선박의 납기는 2024년말인데, 이번에 수주한 2차선 납기는 2025년 1분기로 알려짐. 스크러버도 장착하지 않은 전통연료 선박으로 언급됨. (선박뉴스) (<https://bit.ly/3VNHuMI>)